

제25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1월02일(목) 오전 10시

제25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 개의)

○의사팀장 유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에 따라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곱게 물든 단풍이 더욱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 11월을 맞이하여,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의정활동과 정책의 연구·연찬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만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시에서는 ‘삼한의 초록길’을 ‘시민의 푸른길’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삼한의 초록길은 2011년도에 아름다운 도로명칭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의림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여 선정되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삼한의 초록길의 명칭을 갑자기 시민의 푸른길로 변경한 것은 시민에게 혼란과 분별을 초래할 뿐이며,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도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푸른길로 변경하면서 시의회 및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였으며, 대표성이 부족한 시민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의림지를 지나 피제골로 연결되는 솔방죽 생태녹색길, 삼한의 초록길,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은 우리 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비생산적인 시정 정책은 시민사회에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분열만 초래할 뿐, 지역발전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현안사업 추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시에서 추진할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담고 있으며, 오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계획에 한치의 미흡한 점도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냉정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과감하고 단호한 지적과 보완으로 제천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결실 있는 마무리와 더불어 새로운 준비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올 한 해의 시정 성과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아쉬움이 남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계획에 어긋남이 없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이상으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